

‘빅리그 도전’ 양현종 미래는... “늦어도 20일까지 결정”

FA 자격으로 메이저리그 진출 타진

“마이너 강등 거부권은 고집 안 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메이저리그(MLB) 진출에 도전 중인 양현종(33)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번 겨울 KBO리그에서 MLB 진출에 도전한 선수 가운데 양현종만 남은 상태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 진출에 도전한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나성범(32·NC 다이노스)의 희비는 엇갈렸다.

20대 중반의 젊고 유망한 내야수로 MLB 구단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와 4+1년, 최대 3900만달러에 계약, 빅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반면 나성범은 MLB 구단들과 협상 마감 시한인 10일 오전 7시까지 계약을 맺지 못했다.

FA 자격으로 MLB 도전에 나선 양현종은 협상 마감 시한이 따로 없다. 그러나 이달 20일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KIA 타이거즈에 잔류하게 되면,

MLB 진출에 성공하면 시즌을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면 20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생각이다. 이달 중순이 넘어가면 2021시즌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현종의 에이전트인 최인국 스포스타즈 대표는 “1월 중순 정도에는 결정을 해야 2021시즌 준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늦어도 20일까지는 결정을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2019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 진출에 성공한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MLB에 연착륙한 것이 양현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ML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팀당 60경기의 초미니 시즌을 치렀고,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이에 입장 수입을 챙기지 못한 MLB 구단들이 재

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MLB FA 시장은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트레버 바워, 조지 스프링어, J.T.리얼무토, DJ 르메이유 등 대어급 FA의 계약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거물급 FA들의 계약이 어느정도 마무리돼야 MLB 구단들이 그 다음 등급의 FA에 눈을 돌리는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 프로야구에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 진출을 추진한 스가노 도모유키(32·요미우리 자이언츠)도 계약에 이르지 못해 요미우리에 복귀했다.

복수 구단의 관심을 받고도 계약에 이르지 못한 스가노는 “MLB 구단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 제안 중 내 안에서 100%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며 “미국의 상황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 분명 있었다.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양현종의 경우 스가노처럼 현지 언론에서 활발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30대의 나이도 걸림돌로 느껴진다.

양현종 측도 다소 초조한 마음을 안

고 있다.

최 대표는 “선발진이 완성되지 않은 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직접 현지에 건너가지 못해 선수 본인도 다소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MLB 진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이나 선발 보직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최 대표는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을 제시하는 팀의 제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지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부터 해당 조항을 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고집하다가 협상에 진전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현종이 커리어 대부분을 선발로 뛰어 선발로서 관심을 보이는 팀이 많지만, 보직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MLB에 갈 수만 있다면 실력으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FA 자격이지만 2021시즌 준비를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양현종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김미희기자



전남드래곤즈, 안산서 활약한 ‘알짜’ DF 김태현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안산그리너스와 서울이랜드에서 활약한 ‘알짜’ 김태현을 영입했다. 김태현은 중동고와 용인대를 거쳐

2018년 안산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3년 간 안산과 서울이랜드를 오가며 활약한 김태현은 사이드백으로서 공격 장면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는 선수이다.

위협적인 슈팅과 날카로운 크로스가 장점인 김태현은 타압박을 통한 측면 공격 플레이에 활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비수답게 수비력 또한 공격력에 뒤처지지 않는다. 빠른 스피드로 1:1 대인수비와 커버 플레이가 탁월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로 상대 공격 전개를 어렵게 할 줄 아는 선수다.

측면 빌드업 시 전술적 수행 능력 및 활용도가 높으며 다양한 포지션 소

화가 가능한 김태현은 “작년에 K리그 2에서 전남을 만났을 때 상대하기 어렵고 두려운 팀이었다. 제가 그런 팀에 오게 되어 기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매 경기 투쟁심 있고 다부진 플레이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가오는 2021시즌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태현 선수는 포지션 DF(RB), 96년생으로 신장 175cm, 체중 71kg, K리그 출전 54경기 2득점 5도움, 선수경력 중동고, 용인대, 안산그리너스(2018), 서울이랜드(2019), 안산그리너스(2020)에서 활약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키움 이정후, 5억5000만원에 계약...5년차 최고 연봉

박병호, 5억원 깎인 15억원에 도장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간판 타자 이정후(23)가 5년차 최고 연봉 기록을 경신했다.

키움은 12일 이정후와 지난해 연봉 3억9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인상률 41%) 오른 5억5000만원에 2021시즌 연봉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정후는 최근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한 김하성이 가지고 있던 중전 5년차 최고 연봉(3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정후는 2019시즌 연봉 2억3000만원, 2020시즌 연봉 3억9000만원으로 각각 3년차, 4년차 최고 연봉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40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3(54타수 18안타) 15홈런 101타점 85득점으로 팀 타선을 이끈 이정후는 2020시즌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개인 통산 세 번째 골든글러브 수상이다.

이정후는 “매년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시는 구단에 감사드린다. 만족스러운 계약을 하게 돼 마음 편하게 운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객 계약을 맺은 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팬 분들과 구단의 기대를 충족 시켜 드릴 수 있도록 올 시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후는 “(김)하성이 형의 빈 자리를년부터 잘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 올 시즌 목표도 변함없이 팀 우승이다.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

지난해 부상과 부진 속에 아쉬운 성적을 남긴 강타자 박병호는 2020시즌

연봉 20억원에서 5억원(삭감률 25%) 깎인 15억원에 사인했다.

적잖은 금액이 삭감됐지만, 박병호는 여전히 팀 내 최고 연봉자로 이름을 올렸다.

투수 중에서는 양현이 1억2000만원, 김태현과 이순호가 각각 1억원에 계약하며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역대 연봉에 진입했다.

야수 중에서는 박준태, 전병우, 허정현이 10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데뷔 첫 역대 연봉을 받게 된 박준태는 지난해(4500만원) 대비 144.4% 오른 1억1000만원에 계약, 팀 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전병우는 106.9% 오른 6000만원, 허정현은 100% 인상된 7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키움은 이정후, 박병호를 포함해 2021시즌 등록 선수 51명 전원과 연봉 계약을 완료했다.

51명 등록선수 가운데 역대 연봉자는 투수 6명, 야수 7명 등 총 13명이다. 연봉 총액(등록선수 기준)은 57억 1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6% 감소했다.

서선욱 기자

코로나 이후 첫 세계대회 개최...한국 男핸드볼 출전

男핸드볼, 코로나19 뚫고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한국 남자 핸드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제27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약 1년 만에 열리는 핸드볼 국제대회다. 강일규 감독이 이끄는 선수단은 오는 14일 이집트에서 개막하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11일 밤 출국했다.

총 32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 탁구와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등이 연기 혹은 취소된 가운데 구기 종목 중에선 사실상 처음으로 주요 세계 규모 대회를 재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회는 무관중으로 열린다.

현지 입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대표팀은 출국을 앞두고 대한핸드볼 협회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안전 교육을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해 선수단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회 조직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방역이 이뤄진다.

참가팀은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급속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호텔 도착 직후에도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72시간 주기로 반복해서 검사가 이뤄진다.

또 참가팀별 담당관 1인 배치, 각 경기장 및 호텔에 4인 1조로 구성된 의료팀 상시 배치, 관계자 전원 외부인 및 시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버블 시스템 등을 가동했다.

유니폼 착용 및 샤워는 호텔에서 실시, 라커룸 내 취식 금지, 개인 수건 지참, 이동 간 거리두기 유지, 경기 중 음료 나눠 먹기 금지 등 선수단 행동지침을 통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작년 12월 덴마크에서 열린 유럽 여자선수권대회를 무사히 운영했던 스태프들이 그

대로 이집트로 넘어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고 했다.

올해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일본은 일찌감치 이집트에 입국해 현지 코로나19 운영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한다. 입국 과정에서 이뤄지는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모두 영상 촬영했다.

선수단은 이와 별도로 마스크 5000개와 손 소독제 500개를 지참했다.

한국은 지난해 1월 쿠웨이트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선수권대회 티켓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강원도 태백에서 전지훈련을 가졌다.

선수단은 대학생 19명과 고등학생 1명으로 구성됐다.

아시아선수권 준우승의 주역 김진영(경희대)을 비롯해 2018년 한국을 26년 만에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이끈 골키퍼 안재필(조선대), 이병주(한국체대), 전영제(강원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32개국 참가해 8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조별리그로 펼쳐지는 예선에서 각 조 상위 3명이 본선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며 다시 6개국이 4개조로 나뉘어 본선라운드를 갖는다.

여기서 각 조의 상위 2개팀이 8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김민정기자

KT 주권, 연봉조정 신청...2억5000만원 vs 2억2000만원

2012년 이후 9년 만에 신청 선수 나와

KT 위즈의 우완 불펜 투수 주권이 1억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 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KT 관계자는 “주권희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KBO의 판단에 맡겨보기로 했다. 주권희 선수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구단의 고과 선정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 제시액이다. 다른 선수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금액을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연봉조정을 신청한 선수가 나온 것은 2012년 당시 LG 트윈스 소속이던 이대형 이후 9년 만이다. 이대형은 당시 조정 신청을 취소했다.

조정위원회가 열린 것은 2011년 이대호(롯데 자이언츠)가 마지막이다. 2010시즌 타격 7관왕을 차지한 이대호는 2010시즌 연봉 3억9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7억원을 요구했고, 롯데는 6억3000만원을 제시했다. 당시 조정위원회는 구단 제시액으로 이대호의 연봉을 결정했다.

주권이 1억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 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KT 관계자는 “주권희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KBO의 판단에 맡겨보기로 했다. 주권희 선수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구단의 고과 선정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 제시액이다. 다른 선수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금액을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연봉조정을 신청한 선수가 나온 것은 2012년 당시 LG 트윈스 소속이던 이대형 이후 9년 만이다. 이대형은 당시 조정 신청을 취소했다.

조정위원회가 열린 것은 2011년 이대호(롯데 자이언츠)가 마지막이다. 2010시즌 타격 7관왕을 차지한 이대호는 2010시즌 연봉 3억9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7억원을 요구했고, 롯데는 6억3000만원을 제시했다. 당시 조정위원회는 구단 제시액으로 이대호의 연봉을 결정했다.



역대 연봉조정 신청 사례는 97건 있었고, 실제 조정위원회가 열린 것은 20차례 있었다.

이 중 선수 요구액이 받아들여진 것은 2002년 LG 소속이던 유지현이 유일하다. 당시 유지현은 2001시즌 연봉 2억2000만원보다 2000만원 많은 2억4000만원을 요구했고, LG는 1000만원 깎인 1억9000만원을 제시했다. KBO 조정위원회는 유지현의 손을 들어줬다. 김미희기자